



# 나눔이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의 아름다운 이야기"



# Contents



발행인 : 나눔이네 사람들  
편집인 : 문미향, 이정화, 오상민  
인쇄처 : 디자인잠수함 TEL : 043) 855-2231

(우) 27489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9  
TEL : 043) 843-9912, 844-8150  
FAX : 843-9911

## 03 신규직원(순환보직) 인사말

### 거주지원팀

---

- 04 가온 이야기
  - 05 나르샤 이야기
  - 06 내담 이야기
  - 07 별하 이야기
  - 08 다운 이야기
  - 10 산다라 이야기
  - 11 아토 이야기
  - 12 한별 이야기
  - 13 신규가족 소개
  - 14 나눔의집 이모저모  
- 우리 이렇게 지냈어요!!!
- 

- 16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 19 후원 안내 및 수입 지출
- 20 나눔의집 안내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을 수령  
후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  
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나눔의집으  
로 연락주세요~

나눔의집 홈페이지  
<http://www.cjnanum.or.kr>

## 신규직원(순환보직) 인사



사회복지사 원 선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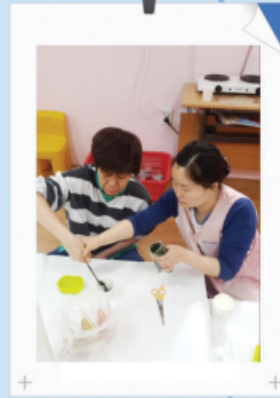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송덕재활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번 7월 1일부터 순환보직으로 나눔의집 내담호실에서 근무하게 된 원선우입니다.

장마가 오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 오는 계절이 돌아오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무더운 계절도 열정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이 시간도 즐겁게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법인의 운영시설이고 이용인분들을 자주 뵈어서 첫 근무를 할 때도 낯설지 않았고, 이용인분들도 반갑게 맞아주셔서 내집 같은 편안함이 들었습니다.

입사를 하고 처음에는 이용인분들의 이름을 외우고 적응하기에 바쁜 시간들이었지만 저에게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준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근을 할 때 이용인분들이 잡아주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손을 잡아줄 때 마다 새로운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것 같아서 매우 즐겁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고 일을 하니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이용인분들에게도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와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루하루가 신선하고 즐거우며, 재미있습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재미가 나눔의집과 제가 함께하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바라며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내담호실 선생님들, 그리고 저의 새로운 가족들인 내담호실 식구들 모두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의 향기가 넘치는~’ 가온 이야기



사회복지사 홍 승 현

비누공예를 배워요.  
버블버블~~

가온으로 놀러오세요. 복숭아향 레몬향 장미향이 싱그러운 가온으로요~~

비누를 만드는 날이면 나눔의집은 향긋한 꽃 냄새, 과일 냄새로 더 아름다워집니다.

버블버블 프로그램은 비누를 만드는 시간으로 이용인들이 직접 원하는 재료로 천연비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쁘게 포장해서 사랑하는 원가정 가족들이나 지인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손님이 방문하셨을 때도 선물해드리면 다들 예쁘다고 말씀하시며 반응이 매우 좋은 인기 상품입니다.^^

예쁜 여인들끼리 모여 만들어서 그런지 비누들이 하나같이 빛깔도 곱고, 모양도 아름답습니다.

나눔의 집에 오시면 비누향기 가득한 가온을 꼭 찾아주세요. 사랑합니다~♥



##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나르샤 이야기

사회복지사 **우 경 순**

나르샤 호실에서는 지역사회적응교육의 일환으로 취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용인들을 모시고 지난 6월 7일 송덕원 산하시설인 동량면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웰코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웰코로 향하는 동안 차안에서 종진씨가 예전기억을 떠올리며 웰코를 가려면 충주댐을 지나서 가야 농협을 들릴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오랜만에 예전에 다녔었던 직장에 방문한다고 하니 매우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종진씨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계속해서 길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종진씨의 길 안내를 따라 웰코로 가는 길 중간에 있는 농협에 도착하여 웰코 직원 분들에게 선물할 캔커피와 아이스크림을 산 후 다시 웰코로 향했습니다.

웰코에 도착을 하니 국장님과 원장님이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선물을 전달한 후 웰코 국장님을 따라 2층으로 이동했습니다. 2층에 도착해보니 견과류를 만드는 작업장, 물티슈를 생산하는 작업장 등 나눔의집에서 보지 못하는 새로운 모습에 이용인분들 모두가 호기심 많은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웰코는 38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모여 일을 하며 오전 9시에 출근을 하여 오후 5시에 퇴근을 하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50분 동안 일하고 10분씩 쉬어가며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용인 분들이 모두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보니 웰코 원장님과 국장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근로자분들을 챙기며 일하시는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웰코에서는 견과류 포장뿐만 아니라 쇼핑백 손잡이 등을 끼우는 임가공실, 전자부품 조립을 하는 전자임가공실, 종이컵 생산, 제빵 등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주시기 위해 전체 작업장을 일일이 라운딩하며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어 견학 온 이용인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공장 견학을 하는 동안 종식씨와 종진씨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반가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민성씨는 견과류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면서 본인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듯 “나도 돈 벌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송덕원 산하시설 중에 이렇게 훌륭한 직업재활 시설이 있다는게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민성씨의 바램대로 중증장애인들도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담 이야기



사회복지사 김 민 영

지난 2017년 11월에 내담 호실에 배정 받아 벌써 8개월이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다소 거친 이용인 분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게 적지 않은 부담 아닌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 왔을 때 보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건 그만큼 우리 호실 이용인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친해졌기 때문에 느껴지는 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항상 아이같이 관심이 필요하며, 호실 일을 잘 도와주시는 말형 신환수씨, 나름대로 고집도 강하고 트로트를 가장 좋아하시는 박창현씨, 방에서 은둔생활을 하시며 자신만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마법사 이세진씨, 항상 인사를 먼저하며 반겨주시는 점잖은 신사 김병학씨, 몸은 불편하지만 스스로 노력하고 자립의지가 강한 오뚝이 청년 방일홍씨, 산다라 호실에서 내담호실로 이동하여 특별훈련 중인 별나라 왕자 황인구씨, 음악을 사랑하며 웃음을 나눠주시는 기부천사 김선호씨, 특유의 웃음소리와 춤을 자랑하고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해나가는 해결사 최운섭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민이 많은지 소리도 많이 지르고 다

니며, 여기저기 궁금한 게 많은 취준생 남희재씨, 처음에 마음을 열기 어렵지만 가까워지면 여리고 아이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부드러운 남자 장경탁씨, 담당 선생님들과 장난을 잘치고 소소한 관심을 바라며 항상 엉뚱한 사고를 치는 씬닭 하정수씨, 자립호실에서 스스로 생활해 나가며 적응하느라 힘든 가을남자 김의섭씨.....

이렇게 글을 쓰면서 미소가 지어지며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각자 개성이 뚜렷한 내담호실 이용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겠지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6개월 동안 큰 사고 없이 이용인 분들을 이끌어 주신 우리호실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다고 자축하고 인사드립니다. 우리 내담호실 이용인 분들 지금처럼 아프지 말고, 다투지 말고, 즐겁게 재미나게 행복하게 생활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지만 내담의 어제, 오늘, 내일도 파이팅하며 내담을 만들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내담 호실 파이팅~!



## 예쁜 얼굴, 예쁜 미소 별하 이야기

사회복지사 이 미 혜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봄날  
이른 새벽부터 별하 호실에 왁자지껄 소란스럽게  
웃음소리가 호실 안을 가득 채운다.

별하의 세상 밖으로~~ 출발!! ^^  
모두들 즐거운 듯 눈빛, 몸짓, 표정을 보이며 순수하게 미소 짓는  
이용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는 관심과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마음으로 빌어보면서 중앙탑으로 버스를 타고 나들이에 나섰다.

차창 밖으로는 예쁜 꽃들이 피어있고  
푸름이 서로서로 자랑하듯 움트는 새싹들은 연녹색으로 변해가고  
별하 호실 이용인들의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마음도 즐거웠으리라~~ 웃음과 여유 속에 따뜻한 마음이 묻어 나오는 느낌이었다.

온몸으로 맞는 봄의 향기,  
이용인들과 함께 손잡고 자연의 푸름을 느끼며 모두가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신이 난 듯 “따따따~ 따따따따~” 노래를 부르는 미경씨,  
팔을 흔들며 “어디가~ 나 또와~~”를 반복하며 웃음을 선사하는 경숙씨,  
넓은 공원에는 별하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마음이 흐뭇했다.

꽃과, 바람과, 햇살과, 따뜻한 마음 담아 오늘도 뜻 깊은 나들이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별하 호실의 건강을 소망하며 앞으로도 반짝반짝, 왁자지껄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별하 호실 파이팅~~!!





# 자연을 품은 다온 이야기

사회복지사 강 미 정

6월 21일과 22일은 다온 호실 이용인 모두 신이 선물한 횡성으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두근두근 거리던 마음은 우리 이용인들의 얼굴을 더욱 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30분의 시간을 달려 도착한 국립횡성숲체험장은 주변이 모두 푸르러 우리의 마음조차 푸르게 만드는 마술을 부리는 듯 하였습니다. 우리 캠프 일정의 첫 시작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여도 늘 즐거운 점심식사시간~ 반찬도 국도 후식도 그리고 간식조차 맛있는 그 곳의 밥맛은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점심 식사 후 자연을 배경삼아 햇님과도 마음껏 인사 나누며 간단한 안전교육 후 숲 트레킹 길에 나섰습니다. 비록 휠체어로 트레킹을 즐기지만 지금 이 순간은 누구보다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다 길 옆에 고이 자란 오디나무의 열매도 따서 먹어봤지요. 그때 먹어본 오디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아주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삼열씨는 너무 맛이 있었는지 나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또 달라고 하였습니다. 양 옆으로 수만 그루의 나무를 보고, 느끼고 그늘에 앉아 이야기도 들어보고, 숲 해설가 선생님이 특별히 준비해 주신 편백나무 미스트도 얼굴에 뿌려보고, 오일도 몸에 발라보고~ 우리 모두 얼굴미남이 되었지요. 그리고 마트에서 완제품으로만 보던 잣을 열매 그대로 보고 직접 까서 먹어보는 시간이 재미있었습니다.





트레킹을 마친 우리는 하얀색 티셔츠에 우리의 꿈, 마음, 소망을 담아 예쁜 티셔츠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마음에 들었는지 모두 즐거워하며 웃음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날의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이동한 우리는 깨끗한 숙소와 넓고 쾌적한 환경에 기분이 더욱 좋아졌지요. 숲체원에서의 배려 덕에 넓은 방을 3명에서 사용하게 되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어요. 덕분에 편안한 휴식을 가지며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둘째 날 상쾌한 아침의 공기는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기분 좋은 시작을 선물해주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란 하늘아래 초록으로 물든 세상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미소 짓게 만들어주었죠.

숲체원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편백나무주머니 만들기였습니다. 피톤치드 향이 넘치는 나무를 직접 만져보고, 냄새맡아보고 마음의 안정이 넘치는 하루였지요. 짧고도 아쉬운 우리의 캠프는 이렇게 숲체원장과 작별인사를 마친 후 횡성 한우를 먹으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찌나 맛있는지 고기만 먹고 다른 반찬과 밥은 아무것도 먹지 않던 삼열씨, 옆에 앉은 삼열씨 것을 뺏어 먹던 만수씨, 빨리 달라고 입을 벌리며 기다리던 지호씨와 건표씨, 세현씨 오늘만큼은 평소와 달리 맛있게 밥을 먹던 병일씨와 하늘씨.. 모두 맛있게 먹고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하며 원으로 귀원하였습니다.

1박2일 동안의 캠프는 우리 이용인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해맑게 웃으며 좋아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그려집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체험을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른 호실 이용인 모두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 ‘발마사지로 건강한~’ 산다라 이야기

사회복지사 김 계 정

작년부터 산다라 호실 이용인분들과 인연을 맺어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이 되면 반가운 얼굴들이 방문 하신다.

다름 아닌 발사.모 발마사지 봉사팀이다.

발마사지의 진행과정은 간단하다. 그 분들이 오시는 날이면 우리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발을 깨끗이 씻고 맞이하면 된다. 그러면 직접 준비해 온 오일과 로션 등을 발과 다리에 바르고 주무르고 혈 자리를 눌러 주시며 마사지를 해주신다.

봉사팀에서 방문하시면 제일 먼저 이용인분들의 이름을 한분 한분 부르며 안부를 물은 후 대화를 나눈다. 가볍게 농담도 주고받으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자기 의사 표현이 부족한 이용인분에게도 계속 말을 걸어주시며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을 볼 때면 봉사팀은 마사지를 해주러 오는 것 뿐 아니라 산다라 호실 이용인분들에게 존중과 사랑을 준다는 것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 어색하고 낯설었던 처음과는 달리 이제는 이용인분들이 매월 이날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봉사팀에서 지원해주는 마사지로 인해 혈액순환을 촉진, 노폐물 배설을 촉진시켜 순환장애를 개선, 스트레스 해소와 누적된 피로를 풀어 주는 마사지 효과와 함께 서로 스킨십이 오가며 신뢰와 안정감 향상 등 이용인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발마사지 봉사팀!!

앞으로도 산다라 호실 이용인분들과 더 좋은 추억 만들고 많은 사랑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알콩달콩 1박2일 캠프 아토 이야기

사회복지사 김 윤 이

장맛비와 함께 시작된 아토호실 캠프!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과연 캠프를 갈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신나게 출발 해보았습니다.  
펜션에 도착해 비를 맞으면서 숙소로 이동하는데 펜션 사장님께서 우산을 씌어주시며 도와주셔서 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도착하여 짐을 풀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저녁식사 준비를 시작 했습니다. 펜션 사장님의 도움으로 숯에 불을 붙이고 준비해온 삼겹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 여사님이 준비해주신 쌈장과 김치를 곁들여 밥과 맛있게 먹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시원하게 맥주도 한잔씩 드시며 즐거워 하셨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창밖으로 떨어지는 비를 보고 있자니 나름 운치 있는 밤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비가 많이 내려서 걱정했었는데 아침이 되니 마치 언제 비가 왔었냐는 듯 맑은 하늘을 보면서 기분UP! UP! 간단히 아침식사를 하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펜션의 이름만큼이나 정말 정원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용인분들과 함께 산책하며 예쁜 꽃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앉아서 자연을 만끽하다보니 금세 이동할 시간이 되었네요. 점심식사 장소인 뷔페식당에 도착하여 평상시 맛보기 힘든 샤브샤브와 초밥 등을 담아 맛있게 식사를 마친 후 원으로 귀환하였습니다. 배도 부르고 날씨도 따뜻하니 이동하는 차에서 짧은 단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1박 2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연을 만끽하고 비오는 소리도 들으며 힐링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토호실이 캠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움주신 이금자, 김운식 선생님, 소잡해지가 얼마 남지 않은 남훈, 택범 공익요원과 퇴근 후에 잠시 들려주신 김민영 선생님, 맛있는 고기를 갖고 저희를 찾아주신 이명주 팀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여인들의 봄맞이 한별 이야기

사회복지사 정 상 숙

크고 밝은 별들의 외출~  
봄의 정령이 하나 둘 솟아오르는 4월 어느날~  
한별 여인들이 봄맞이를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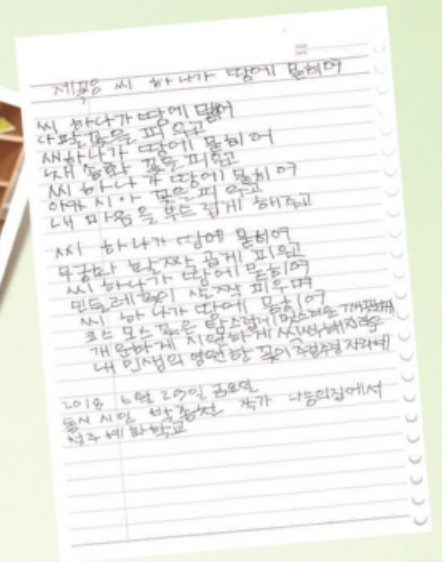
잔디장이 학교를 다니느라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하여서 아쉬웠지만, 다른 호실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어서 여유롭게 꽃구경을 하였네요. 한별 이용인들이 새로 만나서 나가는 첫 나들이라 기대도 되고, 맛있는 점심 식사도 예약 되어 있어서 들뜬 마음으로 나섰답니다.

새로 장만한 예쁜 옷을 입고 손에 손 잡고 출발~  
수안보 벚꽃 길에 도착하여 하나 둘 산책을 합니다. 응연씨는 꽃을 보자마자 함박웃음이 가득합니다. 꽃만 봐도 좋은 응연씨는 꽃소녀같습니다. 삼삼오오 사진도 찍으며 벚꽃 속으로 들어가 꽃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책 후 수안보 지역식당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관광지라 식당은 많은데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식당은 찾기 어렵네요. 홀이 있는 식당을 찾아 한우불고기 백반을 먹었습니다. 다소 소란스러운 우리 이용인들인데도 사장님이 친절하게 대하여 주십니다. 점심도 모두들 맛있게 잘 드셨습니다. 인근에 물탕공원이 있어서 식사 후 공원으로 구경을 갔습니다. 온천지역이라 족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주나씨와 소라씨는 족욕도 하였습니다. 복순씨는 공원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느라 우리 사회복지무원 오빠가 따라다니며 애를 먹기도 했네요. 귀원하는 길은 송계 계곡을 돌아 벚꽃 가로수를 뚫고 자연을 느끼며 왔습니다. 안전하게 운전을 해주시는 오상민 선생님 덕분에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수정씨는 차안에서 연신 기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햇살도 좋았고 그 햇살에 눈부시게 빛나는 한별 이용인들이 먹고, 보고, 즐기고~ 알찬 봄맞이를 하였습니다.





# 신규가족 소개

박종천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시 다사랑장애인센터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눔의집 가족이 된 박종천입니다.

저는 승미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은 수영입니다.

저의 꿈은 다크멘터리 감독과 영화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 생활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 저보고 호칭을 형이라고 불러서 기분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젊은데 나이가 많아 보이는 형이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니 기분이 나빠지고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형이라고 부르지 말고 동생 또는 이름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나눔의집 가족들과 좋은 기억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온 기념으로 시 한편을 적어 보았습니다.

## 씨 하나가 땅에 묻히어

동시 시인 박종천 작가

씨 하나가 땅에 묻히어  
나팔꽃을 피우고

씨 하나가 땅에 묻히어  
채송화 꽃을 피우고

씨 하나가 땅에 묻히어  
아카시아 꽃을 피우고

씨 하나가 땅에 묻히어  
무궁화 활짝 곱게 피우고

씨 하나가 땅에 묻히어  
민들레꽃을 살짝 피우며

씨 하나가 땅에 묻히어  
코스모스꽃은 탐스럽게 멋스럽게 개운하게  
시원하게 싹싹해지리라

내 인생의 영원한 꽃이 주렁주렁 자라네.



## 이런 일저런 일



- 일시: 4월 7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충주 대원고등학교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



- 일시: 4월 10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적십자 들꽃 봉사회 꽃심기 봉사활동



- 일시: 4월 12일
- 장소: 월악산 하늘재
- 내용: 보그워너 충주(주) 직원 분들과 함께한 월악산 하늘재 나들이



- 일시: 4월 17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나눔의집 작은 음악회



- 일시: 4월 20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나눔의집 미니올림픽 개최



- 일시: 4월 21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나눔의집 정기부모회

## 이런 일 저런 일



- 일시: 5월 21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민·관 소방합동훈련 실시



- 일시: 5월 29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중앙경찰학교 자원봉사활동



- 일시: 6월 1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전체직원회의 및 표창장 전달식



- 일시: 6월 1일
- 장소: 나눔의집
- 내용: 나눔의집 이용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침해금지서약서 선서!!



- 일시: 6월 15일
- 장소: 충주라이트월드
- 내용: CJ아사모 봉사단과 충주라이트월드 관람



- 일시: 6월 21일
- 장소: 단양문화체육센터
- 내용: 장애인복지시설 어울림한마당 큰잔치 참여

4.1  
~ 6.30

#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매월 후원해주신 후원금은 나눔의집 이용인들과 시설운영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영웅회길도식미주호주순원속호진상속남진속구속오필영현  
 진진춘정상우유정정주해종기다승정형완성진경규수영재정주지  
 최최피하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  
 회재순연영길환철림진구순언화유병선수목성욱기자범수민례주현애명진속열  
 미민운장귀상연용유유종화정정은선진규기명명선성수순은일정중중진  
 조조조조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수식주관웅 자경랑식영완원주속통재원신신속진용목원자일 윤체란회회  
 양용은중중미복선영영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임임임임임임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진수영옥정민속근원일회철혁화영철세진림기순연나영속선수진산회회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유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  
 정태갑관능하래호규회영근상석순정호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윤  
 보혁기길구인준식국철임용옥례신속중용혁석희경정정구진나순중한영  
 심무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  
 산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  
 정주옥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  
 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  
 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  
 영화송원식기순심원영희우현회회근수순춘호랑미성속속현회아수속창동  
 근병학회법상신갑경만기복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  
 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  
 덕승호영기영훈구산성수호현회신규수준민성주지원진화욱태자회수회회  
 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  
 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  
 양연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근회경복속호원기배합식행영호근아속주회회용중영화국미수속속용용해  
 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  
 영선연열표현영민배철선애영경지혁대일호규남속교남근원민정현길수  
 남대도도동동로만만미미미미민민민민민민민민민민민민민민민민민민  
 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  
 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  
 원진철희라환명성배정의선속화경연영근주호회원중수순해회래성식자흥수  
 신영동동미미재형은정미선속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강강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 4월~6월 신규후원자

문근영, 김태규, 안세인, 안무혁, 이하나, 차운유, 박미영, 전상원, 김경혜

- ### 단체 및 특별후원
- ㈜거성에너지
  - 교현총일약국
  - <재>기독교대한감리회
  - 김앤권메디칼의원
  - E-마트
  - 노무법인 화원
  - 늘푸른소아과
  - 다래떡볶이
  - 대광레미콘.아스콘
  - ㈜대덕스톤
  - 대성보조기
  - 드림유 웨딩홀
  - 디자인잠수함
  - 무학시장상인회
  - 박통상회
  - 불타는구공단
  - 비엔케이코리아(주)
  - 사과나무교회
  - 새마을금고 중앙점
  - 샘물중앙교회
  - 성총문구도매
  - 성호종합주방
  - 송덕교회
  - 신림가나안교회
  - 안기현이비인후과
  - 연세미소치과
  - 영은감리교회
  - 영진유통
  - 오미희내과
  - 오성카페트
  - 우림산업
  - ㈜우진산전
  - 은성미가(정미회 사과계장)
  - 이형섭복지재단
  - 일동종합식품
  - 적십자 햇살 봉사회
  - 전국무역
  - 제이스브로드
  - 제자들성결교회
  - 진정언이비인후과
  - 충주대원고 이기성 외 5명
  - ㈜케이피에프
  - 터미널주유소
  - 태성수산
  - 푸른솔 주유소
  - 한국전기안전공사
  - 충주타이어마트(호암동)
  - 한미음악국
  - 해피빈
  - 현대사무용가구
  - 현성OA
  - 현대의료기
  - 호암알미늄
  - 흥이소아과
  - 흥진환경
  - 나눔의집 전직원



#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4.1  
~6.30

## 방/문/후/원



(주)생활낙원	삼푸대 3대, 침대용 삼푸대 5대, 목욕매트 30대
(주)유림철강	불판 2개
(재)기독교대한감리회영문교회	빵 25개
강갑수	무우 56kg
경대수	롯데 초코파이 3곽
국가인재개발원	델몬트 프리미엄 오렌지 100 1곽
권인중	가베 63개
권혜련	오리온초코파이(18개입) 5곽, 프리미엄 비피더스(8개입) 10봉지, 수박 3통
김경혜	참치 2kg, 황태채 1봉지, 돈가스 18팩
김도연	현미녹차(100티백), 맥심화이트골드(210개입) 1곽
김명수	라이트월드 초대권 40장
김수옥	빵 10개
김은주	액체전자모기향 20개, 가정용 살충제 30개
김하늘	제주수제초코파이 1곽
나눔사랑회	피크닉 96개
다래떡볶이	떡볶이소스 13kg
민은자	상추(2kg) 2box
박만원	상추 4kg, 감자 80kg
박미희	대추토마토 2box
법성원	상추 4kg
살레시오의집	파워에이드 48개, 오렌지 1box, 조지아 카페 마일드 90개
삼마메디컬	아이스크림 50개
송예림	오렌지 1box
송덕교회	파리바게트 롤케익 8개, 오리온후레쉬베리(8개입) 8곽, 과자 4set, 마가렛트 8곽
송덕재활원	휴지 50롤, 벽쿠션 10장, 모서리 보호대 5개
송덕학교	간초 8봉지
심순화	떡 2말
안혜숙	포도봉봉선물용 3곽, 포도봉봉캔 4캔, 생수 20병
옹달샘	로제치킨파스타소스 12개입 15box
월악산자연유정란(노윤희)	유정란(30구) 8판
이선락	맛동산 2봉지, 오리온초코파이(실속형) 1곽, 참한입파베기 1봉지, 미니웨하스 2봉지,

이재진	오렌지 1봉지, 바나나 2봉지
이화선	떡 2말
자원봉사센터	김 4봉지
전희문	박카스 200병
정금자	크리센팬티형기저귀 10팩(10개입)
정유미	동화 홍삼골드 2곽
제이스브루트	브로컬리 30kg
제천관광(정연숙)	빵 674개
조돈희	바지 2장, 반팔티 2장, 전판용 JP 1장, 긴팔티 1장
최순례	미에로화이버 40병
충주살미대학철옥수수	두유 6box, 물티슈 1box
충주시청	냉동대학철옥수수 210팩
친구가있는집	화분 9개, 방울토마토(2kg) 50box
푸드뱅크	정통빵만주 100개
피희경	빵 40개, 생닭 150마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충북협회)	한국고전문학 60권, 과학학습만화 vyh 20권, 푸르넷 세계여행 24권, 서울대 선정인문고전 24권, 영어동화위인전 21권, 한국우수전래동화 70권, 한국역사 탐구 44권
햇살적십자	서울카페 타임리스 블랙옴 에너지 밸런스 로션(140ml) 11개, 서울카페 타임리스 블랙옴 올데이 톤업 비비(50g) 11개, 에스엔피 타임리스 블랙옴 밸런스로션(130ml) 5개, 서울카페 타임리스 블랙옴 아쿠아틱 바디&슈트 스프레이 20개, 서울카페 티타임 모링가 트리트먼트 3개, 적외선치료기 2대, 서울카페 티타임 라임 플라워 온열마스트 240개
호암알미늄(김일식)	골드파인애플 1box, 바나나 1box, 오렌지 1box, 한우국거리 1봉지
홍승현	가을무엇 4봉지
홍진환경	물티슈(10팩) 1box
	단팥빵 240개, 카스테라빵 196개

#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분들



방/문/후/원



4/20 햇살봉사회 후원물품 전달 및 봉사활동



5/21 나눔사랑회 후원물품 전달 및 봉사활동



5/8 대한미용협회 미용봉사활동



5/29 중앙경찰학교 나눔의집 대피로 보수작업 지원



6/3 한국에이버리 NCG동호회 후원물품 전달 및 봉사활동



6/27 에스오일 상품권 100만원 전달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정기후원** : 매월 1구좌(5,000원)이상 후원신청(전화 또는 신청서 작성) → 지로나 자동이체로 입금 → 소식지 발송 입금확인

- 지로입금방법 : 본 원에서 발송되는 지로로 입금
- 자동이체방법 : (1) 거래하시는 은행에 통장,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본 원의 계좌로 자동이체신청  
(2) 나눔의집 홈페이지에서 후원신청이 가능하며, 나눔의집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셔도 됩니다.



**물품후원** : 생활필수품, 교재, 교구, 의류, 간식 등

E·MART에서 즐거운 쇼핑을 하신 후 받으신 영수증은 고객만족센터에서 나눔의집으로 입금을 시켜주세요.  
바코드 확인 후 영수증은 돌려드립니다. 모여진 영수증 총계의 0.5%가 나눔의집 가족을 위해 사용되어 집니다.



## 자원봉사활동

- 생활보호 서비스 보조 (목욕, 식사, 말벗되어주기, 산책, 종교활동 등)
- 가족 봉사, 미용봉사, 노력봉사 등



**해피빈 후원** 해피빈은 nhn(NAVER)이 운영하는 공익포털사이트입니다.  
네이버 회원이면 누구나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콩을 나눔의집 모금함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http://happylog.naver.com/cjnanum.do>



## 후원계좌번호

- 지로 : 7607189
- 국민은행 : 402-01-0388-399
- 하나은행 : 691-810006-26805
- 신한은행 : 100-011-220720
- 농협 : 417015-51-051393
- 우체국 : 301507-01-002801

보내주신 후원금과 물품은 중증 장애인의 보육 및 치료, 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됩니다.

## 2018년 4월~6월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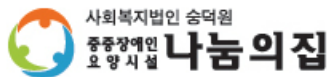
수입		지출			
1분기 이월금	63,570,005원	제수당&퇴직적립금	1,725,150원	시설장비유지비	17,401,945원
비지정(4월분)	8,662,280원	일용집급	270,000원	생계비	2,377,900원
비지정(5월분)	9,633,280원	기타후생경비	3,087,300원	수용기관경비	621,500원
비지정(6월분)	8,023,370원	회의비	96,670원	의료비	282,000원
지정기부금(5월분)	200,000원	여비	1,437,750원	연료비	358,000원
법인전입금	1,000,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3,355,290원	교육비	87,600원
		공공요금	6,399,480원	의료재활 사업비	387,200원
		제세공과금	326,300원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9,080,030원
		치량비	816,659원	교육재활 사업비	170,000원
		기타운영비	1,406,830원		
		자산취득비	2,659,910원		
총수입 / 91,088,935원		2분기 지출금 / 52,347,514원			
		이월금 / 38,741,421원			



찾아오시는 길

자 가 용 : 충주IC → 충주방향 → 건국대 사거리(우회전) → 0.8m 직진 → 달신 사거리(좌회전) → 1.3km 직진(우회전) → 150m 직진(개나리원룸 좌회전, 표지판 참조) → 300m 직진 후 우회전 언덕 끝자락

대중교통 : 충주 터미널 → 수안보 방향 버스 승차 → 수청골입구에서 하차 → 150m 직진 (개나리 원룸 좌회전, 표지판 참조) → 300m 직진 후 우회전 언덕 끝자락



(우) 27489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9  
 Tel : 043) 843-9912 Fax : 043) 843-9911  
<http://www.cjnanum.or.kr/>